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DAY

조전혁 “초등 진단평가 도입” vs 정근식 “수행평가 확대해야”

조전혁, 학력 신장·사교육비 경감 학교평가청으로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디지털화 막을 수 없어... 충격 최소화 정근식, '학생진단치유센터' 설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로 격차 해소 디지털교과서 '줄속정책'... 역효과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화 후보들이 '학생 학력 평가' 방식을 두고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른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확대를,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수행평가' 확대를 강조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조 후보는 '디지털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강조한 반면, 정 후보는 '줄속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이견을 보였다.

◆ 조 “진단평가 전면시행 부활”... 정 “수행평가 확대”

이날 조전혁 후보는 지난 10년 학생 학력 수준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학부모 대표팀 지지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해 '학생 평가 축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중점 공약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해 '초등 진단평가' 도입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우리나라 사교육은 공교육이라는 '정규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활성화된 '암시장'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성취도평가가) 표본평가로 전환되면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전수평가로 바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적) 장단점을 파악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육 당국도) 이를 통해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필평가는 이른바 중간·기말고사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진단평가 성격이다. 반면, 수행평가는 선다형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해 간략하게 자주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필평가와 다르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수행평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필평가는 결국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생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지필평가는 없애고 수행평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는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평가 자체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진단평가는 지양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 조 “학교·교사 평가해 질 관리”... 정 “학생별로 학습 부진 원인 진단”

양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한 가운데, 조 후보는 기관 평가를 통한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정 후보는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대안으로 내놨다.

조 후보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해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평가청이 자칫 ‘교사 평가 기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왜 교사를 평가하면 안 되냐”라고 되물으며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지표가 생기면 전반적인 교육

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습 부진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라며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디지털교과서, 조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정 “줄속정책”

조전혁 후보는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는 “막을 수 없는 추세”라며 “중요한 것은 기술의 전환기에 있어 일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은 우선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중독을 막기 위해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정 후보는 디지털교과서 전면 시행을 두고 ‘줄속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정 후보는 “인공지능시대에 도래했다고 해서 디지털교과서를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꾸리고 억측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현진기자 hji@metroseoul.co.kr

대중교통 이용자 12% ‘기후동행카드’ 쓴다

9월 기준, 지난 2월비 6.3%p 늘어 단기권 이용자, 두 달 새 2배 이상 ↑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9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총 503만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중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비율은 지난 2월 전체의 5.5%(약 23만

명)에서, 올 9월 11.8%(약 51만명)로 6.3%p포인트 증가했다.

평일 중 최대 이용자를 기록한 날은 지난 9월 26일로, 이날 하루 약 62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다. 가을철 나들이 성수기를 맞아 ‘단기권’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루 평균 4000명이 사용했던 올 7월 대비 지난 9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두 달 새 단기권 이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충전에 사용된 언어는 일본어(30%)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28%), 영어(22%), 중국어

(20%)가 그다음이었다. 권종별로는 3일권(34%), 5일권(23%), 7일권(17%), 2일권(14%), 1일권(12%) 순으로 많이 충전·이용됐다. 단기권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지하철역은 명동역,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성수역, 안국역이었다.

시는 본 사업에 들어간 지난 7월부터 ▲서울대공원·식물원, 서울달 포함 문화·여가시설 연계 할인 ▲진접·별내선 등 이용 범위 확대 ▲인천공항역 하차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부가 혜택이 추가되면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

65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접종

경기도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자로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75세 이상부터 11일 이후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75세 이상과 같은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을 활용한다. 이번 절기 접종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 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백신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포항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1114억 조성

전국 최초 1대 1 매칭사업 추진

포항시는 민관협력 매칭사업으로 올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동행 특례보증 재원을 1114억원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례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1: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포항시가 전국 최초이며, 조성 금액 또한 전국 최대 규모다.

시는 지난 2월 지자체 최초로 iM뱅크(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300억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출



지난 8월 포항시는 새마을금고와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200억원 조성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연해 14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이후 7월 iM뱅크(대구은행)의 30억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원을,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포항시가 선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

받으며 200억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조성된 특례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500억 규모의 특례보증 재원 신청을 받는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영암F1경주장서 ‘국제 드론 레이싱’ 펼쳐져

영암 코리아 드론 포물러 리그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2~13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영암 코리아 드론 포물러 리그(KOREA DFL) 2024’를 개최한다.

올해 3월, 전라남도도와 영암군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의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드론 레저 국제 경기 개최’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국내 최초로 F1

경주장에서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암 코리아 드론 포물러 리그는 1000mm급 초대형 고성능 드론이 경쟁하는 경주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조종해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가 승리한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특수 고글인 F PV(First Person View)를 쓰고, 총 6500만원의 상금을 놓고 프로·세미프로·자유형·e-드론레이싱종목으로 총 4을 다룬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